브래드 피트 "이젠 배우 아닌 프로듀서로"

배우 브래드 피트(사진)가 "이제 배우가 아닌 프로듀서로서 일을 즐기려고 한다." 며 배우로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브래드 피트는 최근 한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브래드 피트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횟수를 줄여가려 한다." 며 "이젠 배우가 아닌 프로듀서로서 일을 즐기려 하는 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영화계엔 아직 중년을 위한 캐릭터가 즐비해 있긴 하지만, 영화 산업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나간다고 생각한다." 면서 "나이 든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물러나려 하고 있다." 고 은퇴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브래드 피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과 영화 산업의 미래에 관해 "물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넷플릭스, 왓챠 같은 온라인 TV 서비스(OTT)에 대한 회의감을 표했지만, 난 긍정적" 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 영화 배급·제작사보다 젊은 배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여러 포맷의 탄생이 고맙다." 고 덧붙였다.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영화 '무인지대(No Man's Land)' 를 통해 영화계에 데뷔해, 1990년 영화 '투 영 투 다이' , 1995년 영화 '세븐' 등에 주연으로 출연해 연기력을 입증했다.

이후 2000년 브래드 피트는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했지만 5년 뒤 이혼했다. 같은 해 개봉한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2014년 재혼했으나 결혼생활 5년 만에 다시 한 번 이별을 맞았다.

이민호,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가 한글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9일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에서 배우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행사는 해외 한국어 교원들을 초청하는 한국어·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36개국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민호는 앞으로 재단의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전 세계에 세종학당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민호는 "데뷔한 지 13년이 됐는데 그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면서 "서툰 한국어로 진심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며 "한글을 배우려는 분들에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가가고,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한글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다." 고 말했다. 이민호는 올해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로 꼽혔다

문체부는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된 세종학당은 2019년 6월 기준, 60개국 18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연 6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다.

강인, 슈퍼주니어 탈퇴 … 데뷔 14년 만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34·사진)이 팀에서 탈퇴했다 데뷔 14년 만이다.

강인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슈퍼주니어란 이름을 놓으려 한다." 고 탈퇴를 알렸다.

강인은 "항상 멤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며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는 것이 맞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못난 저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회사 식구들이 마음에 걸려 쉽사리 용기 내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제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했다." 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제 문제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멤버들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2005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한 강인은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오랜 시간 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강인은 SNS 글에서 "무엇보다 14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주신 엘프(팬클럽) 여러분께 가장 죄송한 마음" 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슈퍼주니어란 이름을 내려놓고 홀로 걷는 길에도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저를 배려해 준 멤버들과 회사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며 "언제나 슈퍼주니어가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1272호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동업도 궁합(宮合)이 맞아야 된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멀리 동부의 타주에 산다는 어떤 중년 여인과 전화로 상담하게 되었다. 필자가 그 여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사주팔자가 자수성가(自手成家) 해야 되는 팔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접객성 사업을 하는 팔자가 되며 특수 기술성이 필요한 직업도 할 수 있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지금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그 분야도 특수 기술성이 필요한 업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압소가 골치가 아파서 앞으로는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새로 요식업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겠는지요 ? 동업자 친구의 사주도 살펴주세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필자가 동업을 하려는 친구의 사주를 살펴보면서 건넨 말은 "친구와 동업으로 요식업이라면 그래도 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동업 관계와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문서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기적으로 부인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을 하신다는 분의 운의 흐름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재물운이 좋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만 동업관계를 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동업을 하려는 분과 부인의 사업적인 궁합은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 부인과 다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하던 지압소를 접고 친구와 동업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동업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